

# 우도 '홍조단괴 해빈' 보전대책 제자리

### 제주시, 2011년·2014년 유실방지책 용역 후 대책 전무 주민들 문화재청에 "바닷속 홍조 유입방안 조사해달라"

천연기념물 제438호인 섬속의 섬 우도 '홍조단괴(紅藻團塊) 해빈(사진)'의 침식을 막을 근본대책이 요구되고 있지만 수 차례의 용역에도 해결책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역주민들이 갈수록 줄어드는 해빈 공간을 넓게 확보하기 위해 바닷속 홍조단괴의 유입방안을 조사해줄 것을 문화재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24일 우도면에 따르면 지난해 말 지역민들과 문화재청을 방문해 요청한 홍조단괴 해빈과 관련한 주민 건의사항을 전달하면서 바닷속 홍조단괴가 해빈으로 유입되지 않는 이유도 함께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제주시는 홍조단괴 해빈의 침식원인을 밝히기 위해 2011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용역을 진행했고, 해빈과 인접한 해안도로와 호안벽이

침식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해안도로는 1995년 개설됐고, 월파를 막기 위한 호안벽은 1993년부터 여러차례 보수보강을 거쳐 현재 길이 282.5m, 높이 0.4~2.5m로 축조됐다. 하지만 용역에서 제시한 해안도로를 대체할 우회도로 개설과 현재의 호안벽을 철거하고 친환경적으로 복원하는 방안은 장기과제로 남겨진 채 해빈 유실은 계속되고 있다. 용역 결과 홍조단괴 해빈 면적은 1979년 조사에서는 1만8318㎡였으나 2014년에는 1만2765㎡로 3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우도주민들이 홍조단괴의 해빈 유입방안을 요청한 것은 예전 문화재보호구역 해안에서 갈퀴로 넓이역을 채취하면서 홍조단괴도 동시에 건져올려 해빈으로 유입시키는 효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또 문어가 많아



과거 통발로 문어를 잡기도 했는데, 문어작업을 하지 않으면서 제거하지 않은 바닷속 통발이 홍조단괴가 해빈으로 유입되는 환경을 막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우회도로 개설이나 호안벽 제거가 당장 시행이 쉽지 않은만큼 홍조단괴를 해빈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 연간 150만~200만명 안팎의 관

객이 찾으면서 일부 관광객들이 홍조단괴를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 현재 1명인 문화재돌봄인력의 확충과 지역주민을 활용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도 고민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우도면 관계자는 "홍조단괴 해빈 유실 관련 용역을 여러차례 진행했지만 달린 게 없으니 거꾸로 홍조단괴가 해빈으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도 조사해 달라고 문화재청에 주민들과 함께 요청했다"며 "제주도에도 내년에 용역예산 반영을 요청중"이라고 밝혔다.

홍조단괴는 물 속에서 광합성을 통해 성장하는 홍조류가 석회화되면서 돌맹이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만들어진다. 우도 홍조단괴는 길이 약 300m, 폭 15m 해안에 백사장처럼 펼쳐져 있는데, 세계적으로도 희귀성과 학술적 가치가 인정돼 2004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지만 침식작용으로 해빈 폭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이태원발 확진자 접촉 140명 격리해제

### 코로나19 검사 전원 음성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0시부터 제주지역 14번째 코로나19 확진자 A씨의 접촉자 140명의 자가격리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도내 14번째 확진자 A씨는 지난 5일 0시30분부터 6시까지 용인 66번 확진자 B씨가 다녀간 서울 이태원 킹클럽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제주도에 입도한 6일부터 확진 판정 이전인 9일까지 접촉한 이들은 지인 B씨와 A씨가 근무했던 의원 직원 10명, 해당 의원 내원객 124명, 버스 기사 4명, A씨가 방문한 마트 직원 1명 등 총 140명이다. 확진자의 접촉자는 접촉일 다음

날부터 2주간 자가격리가 이뤄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해당 접촉자 140명은 22일 0시 기준 39명, 23일 0시 기준 49명, 24일 0시 기준 52명이 차례로 격리 해제됐다.

앞서 해당 접촉자 140명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한편 제주지역에서 서울 이태원 등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방문 이력으로 검사를 받은 인원은 24일 오전 10시 기준 총 229명이다.

지난 7일부터 24일까지 수도권 클럽 관련 이력으로 검사를 진행한 229명 중 도내 14번 확진자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228명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오은지기자

# 응급실서 의사 폭행한 40대 점유 1년

### 제주지역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폭행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전 1시 50분쯤 제주시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43)씨의 목살을 잡

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던중 의사가 "특별한 이상이 없으니 돌아가라"고 말한 것에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폭력 전과가 다수 있다"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긴급돌봄 인원 10명으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긴급돌봄 인원을 10명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공무직 제주지부는 "돌봄전담사들은 돌봄교실 내 적정 학생 수는 10명 이내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면역력이 약한 저학년의 경우 세심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제주도교육청은 돌봄전담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돌봄교실 인원수 10명이라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같은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원 단체총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운영은 지자체가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송은범기자



바다직박구리 동지와 사진가들 지난 22일 서귀포시 대륜동 해안 절벽에서 사진가들이 바다직박구리 동지를 옮겨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바다직박구리는 절벽 구멍속에서 동지를 트는 새다. 원 안 사진은 옮겨진 바다직박구리 동지. 사진=독자제공

# 70대 화물차에 치어 숨져

지난 23일 오후 9시40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한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A(70대)씨가 화물차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B(50대)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도영기자

# "마늘 수매가격 문제 근본 해결책 마련하라"

(사)제주마늘생산자협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마늘 수매가격 kg당 2300원 결정은 제주농업을 포기한 것"이라며 "매년 반복되는 마늘 수매가격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마늘생산자협회는 "2300원 수매가는 농민들로서 생계를 보장 받을 수 없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가격"이라며 "정부, 제주도정, 농협중앙회, 마늘 생산자협의회 조합장 등은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마늘생산자협회는 수매

가에 대한 추가 인상 요구를 중단하겠다"며 "다만 매년 반복되는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거대 상인에 납품판매 하는 방식으로 가격 하락을 막을 수 없다"며 "정부와 제주도정은 물류비 예산을 편성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다혜기자

# 도청 앞 전두환 기념식수 표지석 40년만에 철거된 뒤 청사 창고 행

# 도 "행자부와 검토 후 보관까지 없으면 폐기"

제주도청 앞 공원에 있던 '전두환 기념식수 표지석'이 40년 만에 철거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도청 민원실 앞 공원에 있던 전두환 대통령 명의로 된 기념식수 표지석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철거는 최근 한 시민이 전두환 기념식수 표지석이 설치된 것이 부적절하다면서 제거를 주장, 제보함에 따라 도가 기념식수 표지석의 제거 절차를 밟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 기념식수는 1980년 당시 전

두환 대통령이 지방 순회 방문의 일환으로 제주를 찾았을 때 식재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념식수 앞에는 '기념식수, 대통령 전두환, 1980.11.4'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제주도청에는 17개의 기념식수 표지석이 있다. 이중 대통령 기념식수 표지석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유일했다. 도는 표지석이 철거된 기념식수는 제거하지 않고 표지석 없이 그대로 두기로 했다.

이날 철거된 표지석은 청사 창고로 옮겨졌다.

도는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기록물보관 가치가 있는지를 검토한 후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폐기기로 했다. 이태윤기자

**그랜드보청기**

가정의달 보청기 파격 대할인  
보청기전브랜드 50~60%대할인!!  
삼촌들 흔저 전화 주십서! 기다렸수다!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업체◎

제주시 서귀포시 전지역 방문 관리 서비스  
보청기 모든 제품 보상판매 서비스

※ 세계계연의날 기념 청각장애 및 흡연가 이신분들  
금연카드 무료로 가정으로 배달해 드립니다.  
(금연피프, 사탕, 가리근, 구취제거제, 은단, 비타민C)

NAVER **그랜드보청기** 검색해 주세요  
네이버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064-725-9275**

서사라사거리 동쪽 100m 행복방집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골묘목**

**유라실생 4년생**

유라실생 ..... 3년생  
유라실생 접수분양

**천혜향** ..... 4년생  
**성전온주** ..... 4년생  
**황금향** ..... 4년생  
**병자묘** 1년생, 수고 70전  
유라조생 2년생 특묘 사전계약 안내

**한림종묘**

010-3690-2453

**모든품종 감골(묘)분양**

종사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황금향** ◎**레드향** ◎**천혜향** (1, 3년생)

- 유라실생 ● 하례조생
- 윈터프린스 ● 미니향 ● 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궁천변이지
- 천전(가와대) 온주(천지향 8년생)
- 일남일호

※ 신종품 다수보유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서귀포시정 소식**

진드기 매개감염병(쯔쯔가무시증, SFTS) 예방 및 관리 수칙 알림

- 발생 위험 농작업 및 야외활동 : 제초, 벌초, 농작물 수확 및 나르기, 덧밭 가꾸기, 임산물 채취, 등산 및 캠핑 등 풀 접촉이 있는 야외 활동 등
- 진드기가 주로 무는 부위 : 겨드랑이, 가슴, 복부, 허리, 종아리, 발
- 주요 증상 : 고열, 오한, 근육통, 구토 등  
-탈진드기 물린자국 : 검은 딱지(가피)  
-참진드기 물린자국 : 물린자국이 없을 수도 있어서 발견이 어려움
- ※ 증상 발현 시 즉시 의료기관 방문
- 예방수칙 : 밝은 색 긴 옷 착용, 돗자리 및 기피제 사용, 야외활동 후 목욕 및 세탁하기
- 문의사항 : 서귀포보건소 ☎ 760-6092)

2020년 상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알림

- 운영기간 : 2020. 5. 18(월) ~ 6. 12(금)
- 운영대상 : 지방세(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미환급금
- 자동차세 납부 후 폐차 또는 양도하여 환급금을 못 받은 경우
- 소득세(국세) 환급금은 받았지만 지방소득세는 아직 못 받은 경우
- 기타 등등 여러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됩니다.
- 조회 및 신청 방법
- 위택스(wetax.go.kr)에서 환급금 간단 조회를 통해 환급금을 조회 한 후 신청
- ARS(1899-0341)에서도 환급금 신청 및 조회 가능
- 문의사항 : 서귀포시 세무과 ☎ 760-2362)